



‘화엄경 청량소’

반산 스님 옮김  
동국역경원 / 각 4만원



◇반산 스님



◇적묵 스님이 그린 현직 스님의 캐리커처.



◇현직 스님(오른쪽)과 재용 스님.

‘산중일지’

현직 지음  
지영사 / 9천 5백원

# 한글로 읽는 화엄경 핵심

〈화엄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참고서인 〈화엄경 청량소〉의 핵심인 ‘십지품’이 한글로 번역됐다. 청량장판 스님(738-839)이 〈화엄경〉을 해설해 놓은 〈화엄경 청량소〉는 동명장자(635-730)의 〈신화엄경합론〉과 함께 80권 화엄경의 대표적 주석서로 손꼽혀 왔다. 〈합론〉은 탄허 스님에 의해 우리말로 번역되었지만, 〈청량소〉가 번역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책을 옮긴 반산 스님(봉선사 능엄학림 학감)은 지난 99년 1월 출간한 〈화엄경 청량소〉 1권 ‘세주묘엄품’에 이은 두 번째 작업으로 〈화엄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지품(十地品)’ 1-3권을 택했다. 순서상으로는 ‘보현행원품’, ‘여래현상품’, ‘여래명호품’ 등을 먼저 번역해야 하지만 “큰 산을 먼저 넘는다”는 심정으로 ‘십지품’ 번역을 먼저 시작했다고 한다. 20여년을 계획하고 〈화엄경 청량소〉를 모두 15권으로 완간하

## ‘세주묘엄품’ 이어 ‘십지품’ 번역 20년 계획 15권 완간 원력

겠다는 원력을 세운 반산 스님에게도 번역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청량소〉를 컴퓨터에 한 자 한 자 입력하는데 만도 1년 6개월이 걸렸다. 1권 ‘세주묘엄품’을 번역한 뒤로는 책뿐만 아니라 눈병과도 씨름해야 했다. 매일 8시간씩 5년간 번역한 〈청량소〉는 200자 원고지로 1만매가 넘는다. 번역된 원고는 일일이 역경원장 월은 스님(봉선사 조실)의 감수를 받았다. ‘근래에 보기 드문 역경불사(譯經佛事)’라는 평가가 과찬이 아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화엄경 청량소〉 번역 작업이 한글세대와 한문세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반산 스님은 “번역 작업에 물심양면의 도움을 주고 있는 60여 명의 ‘화엄산림회(화엄학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화엄경 청량소〉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 가난 속 ‘구도의 열기’ 생생

1995년 9월 1일, 석남사 주지 스님에게 공책을 한 권 선물 받은 현직 스님. 공책에 무엇을 쓸까 고민하던 스님은 일산 후부터의 이야기를 일기로 쓰기로 결심하고 제목을 ‘산중일지’라 하였다. “지나간 내 수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쓴 이 일지에는 현직 스님이 출가를 위해 선학원을 찾아가 만해 스님을 만난 1931년부터 1966년까지의 수행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3년 전, 〈산중일지〉가 고서경매전에 출품되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지난 3월 지영사에 입수되어 책으로 나왔다. 〈산중일지〉는 ‘일지’라는 형식에 알 수 있듯이, ‘가난이 재산이던 시절’의 산중생활을 현직 스님의 진솔한 글을 통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며칠씩 굶기도 하고, 겨울 옷을 얻어 입고 한 걸음 나

## 용성·만해·만공 스님 등 당대 선지식 일화도 담겨

고, 피부병에 걸려도 약이 없어 낮기만을 기다리던 일화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된다. 또한 이 책에서는 현직 스님이 만났던 용성, 만해, 만공 스님 등 당대 선지식의 면모를 후대인들에 의해 유색되지 않은 생생한 일화로 만나볼 수 있다. 지은이 현직 스님은 연희전문 문과를 거쳐 일본 메이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서른일곱 살 되던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도리사, 북천암, 통도사, 해인사 등에서 참선 수행하다 경북 상주의 직지사 포교원에서 입적했다. 해인사 송월 스님은 부록에 실린 ‘내가 기억하는 현직 스님’에서 “현직 스님은 계행이 청정하고 학식이 깊었다”고 회고하며 “〈산중일지〉는 수행자의 사표를 보여주는 참모로 귀한 자료”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새로나온 책



종교계 복지현황·과제 서술  
**‘종교사회복지’**  
이혜숙 지음  
동국대 출판부 / 1만6천원

종교사회복지연구소 이혜숙 소장(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이 종교사회복지의 실제와 현황, 과제 등을 담은 〈종교사회복지〉를 펴냈다. 지은이는 “종교계는 사회복지 실현에 필요한 거대한 자원의 보고(寶庫)”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학계나 복지현장에서 종교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종교계 역시 사회복지의 이론과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지은이는 책에서 불교계를 비롯해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각 교단의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제시하고 있다.



큰스님 행장 詩語로 노래  
**‘광덕스님 시봉일기’**  
송암 스님 지음  
도피안사 / 8천원

도피안사가 본편 10권, 별편 5권으로 기획·간행하고 있는 〈광덕스님 시봉일기〉 여섯 번째 책이 나왔다. 6권 〈광덕스님 시봉일기-새 물줄기〉 1장에는 ‘새 물줄기’에는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광운동의 사상과 실천’, 김광식(부천대) 교수의 ‘광덕 연구: 출가·수행·종단 재건’, 김호성(동국대) 교수의 ‘천수반야, 천수화엄’이, 2장에는 ‘스님의 비밀장’에는 송암 스님이 쓴 광덕스님 시봉일기가 담겨있다. 3장 ‘미륵의 몸으로(시로 읽는 광덕 큰스님 행장)’에서는 불교인권위 대표인 진관 스님이 ‘미륵의 몸 여래의 몸’이라는 시로 광덕스님의 행장을 읊었다.



회원들 佛緣 동기·수행 소개  
**‘불교와 수필’**  
전국 교수불자연합회 지음  
우리출판사 / 9천원

1988년 창립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연기영)가 처음으로 수필집을 펴냈다. ‘잠 나를 찾는 정진’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서는 45명의 회원들이 수필을 통해 불연을 어떻게 맺었는지, 수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강수군(대구대, 법륜불자교수회) 교수의 ‘불교와 노인의 삶의 질’, 고준화(경기대) 교수의 ‘한국불교 거들너야 한다’, 박경준(동국대) 교수의 ‘생사일대는 어찌 됐고’, 이인자(경기대) 교수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굿 디자이너’ 등이 실려 있다. 책 뒷편에는 필자의 약력과 연락처도 담았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메킨지	김영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3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승택	장승
4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해럴드 블레이크	여시아문
5	사람	서용 스님	고요아침
6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정봉 스님	경서원
7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8	파드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9	타베트 금강경	까말라월라	도피안사
10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다라니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 서울대출신 공학도가 풀어낸 사주의 새로운 개념서

# 내사주 내가 풀다

10干 12支는 순환하는 우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甲木: 지표를 뚫고 나오는 힘
- 乙木: 옆으로도 퍼지는 힘
- 丙火: 밝게 빛나는 광선
- 丁火: 조용히 타오르는 불
- 戊土: 광활하고 거친 대지
- 己土: 부드럽고 낮은 땅
- 庚金: 거친 원광석
- 辛金: 정교하게 연단된 연장
- 壬水: 시원하게 흐르는 물
- 癸水: 이슬 같은 생명수
- 寅木: 햇살이 비치는 골짜기 숲
- 卯木: 꽃이 아름답게 핀 초원
- 辰土: 바깥은 건조하나 안은 습한 늪지
- 巳火: 화려하고 번성할 도성지
- 午火: 불꽃같은 정열의 장소
- 未土: 문화의 산물을 저장할 중재하는 장소
- 申金: 물이 생기는 구획된 도시
- 酉金: 결실과 냉철함이 있는 곳
- 戌土: 낙엽 지고 매마른 땅
- 亥水: 생명이 숨쉬는 얇은 바다
- 子水: 고요하고 깊은 바다

- 부시美 대통령과 남북 정치인 3인의 運은? (실전풀이편에 소개)

- 육친(六親)만 알아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밝혀낼 수 있다.

이 책은 자연의 순환하는 관점에서 사주를 분석하고 팽창(木火)과 수축(金水)의 관점에서 중화용신(中和用神)을 설정하여 독자 스스로 운명을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조부모 부모 본인과 자식의 4대에 걸쳐 진행되는 대아드라마입니다.



임태근 지음 / 46배판 / 336면 / 값 12,000원